

■ 그림 여행



프란시스코 데 사베드라 이 산그로니스
(Francisco de Saavedra y Sangronis c. 1798)

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Goya 1746 - 1828)

(캔버스에 유채 196 cm x 118 cm 런던 코틀드 갤러리
아이오와 시다 래피즈 미술관)

프란시스코 데 사베드라 이 산그로니스는 18세기 스페인의 고위 관료이자 군인으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쿠바에서 활동하며 영국의 패배를 이끌어내는데 초석을 깔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1780년 쿠바에 파견되는 과정에서 영국군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자 사베드라는 상인으로 가장하여 영국령 자메이카로 숨어 들었다. 그곳에서 항구, 방어 시스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후 스페인의 침공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 사베드라는 1780년 그의 일기에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총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치 문제는 아메리카 혁명이 인류에게 물고 올 대격변에 대한 것이다' 라는 예언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

사베드라의 초상화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처음 보았다. 화려한 예복 차림을 한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는데 은빛에 가까운 금발 머리카락과 매우 대조되는 날카로운 검은 눈동자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 그 사베드라의 초상화가 적국이었던 영국 런던 코틀드 갤러리에 걸려 있어서 또 한 번 기억에 남게 되었다.

초상화가 그려질 무렵은 화가 고야가 스페인 궁정화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다. 사베드라는 막 국무장관이 되었고 그의 절친이자 동지였던 가스파르 데 호베야노스는 재무장관으로 취임해서 호베야노스가 고야에게 둘의 초상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고야는 초상화 주인공의 성격과 개성을 파악해서 그림 속에 정확히 묘사해 내었다. 똑같이 책상에 앉은 모습이지만 턱을 괴고 고민에 빠져 있는 호베야노스와 달리 사베드라는 서류를 읽고 결정을 내렸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검은 눈동자를 부릅뜨고 있다. 어두운 배경 속에 푸른 비단옷과 양말이 서늘하게 빛을 내며 인물의 내면을 반영하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당시 스페니쉬 분위기와는 상당히 멀다. 정돈과 단정함을 추구해서 '영국 스타일'에 가까웠던 사베드라의 취향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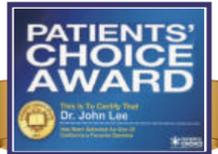
주도면밀하게 적의 패배를 이끌어냈던 스페인 군인의 초상화가 2백여 년 후에 적국의 수도 미술관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며 감회가 깊었다. 역사는 흘러 갔고 사람도 사라졌지만 그림은 여기 남았다는 생각에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다.

《김동백》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www.daebaksigns.com



사장님,
칭찬해 주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배너, 메뉴보드, 광고, 전단, 포스터, 명함, 박스간판, 채널레터, 폼레터, 창문사인, 전시사인, 판촉물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사장님을 위한 수만 가지 대박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최고 광고회사와 디자인 교수 출신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대박사인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대박을 위한
전품목

대박 SALE

쉬! 가격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사인

T. 323.641.7907
1313 Fedora St., LA CA 90006